

지혜로운 자의 대답은 오늘과 내일이 다르다

이상각/시인

오페라 극장에서 즐기고 있던 한 남자가 코를 골기 시작했다. 그러자 안내인이 뛰어와서 그를 흔들며 깨웠다.

“선생님, 제발 코를 골지 마십시오. 당신은 지금 다른 사람들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깊은 잠에서 깬 남자는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다.

“이봐요, 나는 돈을 내고 이 좌석을 산 거요. 그러나 여기에서 내가 자든 말든 당신이 상관할 바가 아니란 말이오.” 그러자 안내인이 웃으며 말했다.

“그건 그렇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때문에 다른 손님들이 잠을 이룰 수가 없다고 항의하고 계십니다.”

서 로의 묵시적인 이해의 공간을 만들어라. 그렇게 되면 그대가 꽃을 들어도 웃고 바위를 들어도 상대방은 웃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대가 아무리 광대짓을 한다 해도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다.

그 사람의 안으로 들어가라. 그대는 끊임없이 수많은 질문에 시달린다.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대해 하염없이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은 기실 우스꽝스러운 짓이다. 인생은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지 껍데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대는 어떤 코미디언을 보면 그가 공연한 희극을 떠올리며 웃을 것이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가 웃기기 위해 흘린 인고의 세월을 떠올리며 손수건을 꺼내들 것이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경이롭고 신비스런 현상이다. 그 실체를 그대가 접촉하지 않았더라도 볼 수 있다.

어떻게? 시인의 눈이 되어야만 한다. 사색가의 가슴이 되어야만 한다.

그렇게 되면 논리는 우스워진다.

한 정신병원에 신입 원장이 부임해왔다. 그래서 정신병자들을 모아놓고 이취임식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신입 원장은 깜짝 놀랐다.

전임 원장이 이임연설 대신 몇 개의 번호만을 말했는데도 환자들은 너무나 우습다는 듯이 깔깔대는 것이 아닌가.

가령 그가 ‘49’라고 말하면 환자들은 재미있는 유머를 들은 듯이 배꼽을 잡고 웃었다.

그가 ‘79’라고 말하면 그들은 더욱 미친듯이 웃음을 터뜨렸다.

신입 원장은 이런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전임원장에게 물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그 숫자의 의미가 대체 뭡니까?”

그러자 전임 원장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것은 농담의 번호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곳에서 일했기 때문에 환자들과 묵시적인 이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의 번호를 말하면 그들은 금방 알아채고 웃는 것이지요.”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다. 그대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그 대답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고개를 끄덕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대는 이미 대답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지 않다. 그는 아무런 준비도 없다. 그는 꺼내들지 않는다. 단지 반응할 뿐이다. 그러므로 아무도 고개를 끄덕일 수 없다.

지혜로운 자의 대답이 내일도 오늘과 같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것이다.

-「인연을 비껴가지 마라」(지혜의 나무)에서 발췌-